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2호 【루계 제23134호】 주체99(2010)년 7월 1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축 하 문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애국적헌신성을 지니고 사생결단의 영웅적투쟁을 벌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의 완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우리 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서해안의 간석지들을 개간할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우리 식으로 대담하게 간석지건설공사를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최대한 다그쳐 끝낼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건설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간석지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며 짧은 기간내에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산을 허물어 바다를 메우며 염주군 다사도로부터 대다사도, 가차도, 소연동도, 대계도를 거쳐 철산반도에 이르는 수십리의 방조제를 쌓고 내부망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옹근 한개 군의 면적과 맞먹는 부침땅을 얻어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세찬 광풍과 령하 수십℃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수십만산발파를 련이어 진행하고 채석 및 부재생산기지, 설비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세계간석지건설력사에 없는 《륙상쇠그물돌자루투석기공법》과 《큰돌묶음식공법》을 비롯한 우리 식의 독특한 여러가지 건설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하였으며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국가에 커다란 리익을 주었다.

간석지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간석지설계연구소, 국가과학원 건설건재분원 간석지연구소 등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은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공사를 다그치고 그 질적수준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과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 평안북도안의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염주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공사를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여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마친것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이야말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며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고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으며 대계도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을 통하여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강성대국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난을 헤치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서해갑문건설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공적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설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기본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과 전투적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국에서는 당의 국토건설방침을 받들고 간석지개간사업을 전망성있게 벌리며 이미 진행중에 있는 건설대상들을 빨리 완공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나날에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와 미진된 간석지내부망공사를 빠른 기간내에 끝내며 대계도간석지구조물관리소에서는 해안방조제와 배수구조물들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해일피해로부터 방조제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모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여 선군시대에 일떠세운 건설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조국의 만년재보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자들과 일군들은 혁명적군인문화를 따라배워 일터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며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집단안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들의 당조직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격동적인 시대적분위기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빛나는 위훈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치도록 하며 로동보호사업과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종업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과 련관단위들에서는 간석지건설에 필요한 연유와 세멘트, 폭약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들며 건설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대적관념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에 경각성을 높이고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강성대국건설에서의 자랑찬 성과로 짓부셔버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대계도간석지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99(2010)년 6월 30일

강성대국건설사에 길이 빛날 만년대계의 창조물

대계도간석지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염주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계도간석지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서해기슭에 펼쳐진 간석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솟아난 또 하나의 만년재부이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 숭고한 투쟁기풍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염주군 다사도로부터 대다사도, 소연동도, 대계도를 거쳐 철산반도에 이르는 수십리에 방조제를 쌓고 내부망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옹근 한개 군의 면적과 맞먹는 부침땅을 얻어냈다.

대계도간석지가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고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밑천이 마련되게 되였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만난시련을 헤치며 서해갑문건설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 건설자들의 투쟁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위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강성대국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시대 대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대계도간석지 준공식이 6월 30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준공식장은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만년제방을 쌓음으로써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또 하나의 승리를 이룩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모여온 건설자들과 지원자들로 차고넘치였다.

준공식장 한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98년 7월5일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 《간석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어 조국의 대지를 넓히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락희 내각부총리, 김평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창식농업상, 김의순국가검열상, 관계부문 일군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영림동지가 전달하였다.

문봉룡 간석지건설지도국 국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국, 전민이 올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대계도간석지 준공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서해안의 간석지를 개간할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을 꾸려주시였을뿐아니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7(2008)년 6월 13일 안개자욱한 이른새벽 대계도간석지 건설장을 찾으시고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간석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 7월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며 건설자들에게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계도간석지가 100년만에 들이닥친 강한 해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도록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고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뜨거운 사랑은 건설자들을 투쟁과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킨 고무적기치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간석지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할 한마음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광란하는 날바다를 막기 위한 결사전을 과감히 전개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조직과 일군들이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투장들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게 하였으며 사업소, 직장, 기대사이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공사속도를 높이였다고 말하였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안고 함마와 정대로 암반을 쪼아내고 막돌생산을 선행시키였으며 운전사들이 매일 1000여리를 달리면서 한㎥라도 더 싣고 한차라도 더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수십건의 가치있는 건설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3호방조제마감막이를 끝냈다고 말하였다.

건설자들이 공사전기간 높은 정신력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외곽제방공사, 1호방조제공사 등 모든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간석지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우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린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성, 중앙기관들, 전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과 평안북도내 당,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많은 건설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 건설자들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필승의 신심을 안고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훌륭히 완공한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공적과 위훈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간석지건설자들과 모임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이 땅우에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든 간석지건설자들이 언제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사상과 뜻과 숨결을 함께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과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이 간석지건설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어떤 조건에서도 맡겨진 전투과제를 무조건 수행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걸린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지배인 최영덕, 다사기계화사업소 초급당비서 김중필, 련합기업소청년동맹 1비서 한철진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와 간석지내부망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보여줄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대상별, 공정별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는 한편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 전투장마다에 혁명적기상과 열정이 차넘치게 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로동보호사업과 후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종업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모두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대고조의 불길드높이 간석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어머니당에 드리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하게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준공식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김일성조선의 부강번영속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 영원하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한평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7월이다.

무적필승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최전연초소들에도,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공장과 농촌들에도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자욱을 새기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흘러온 인류력사에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어버이가 또 언제 있었던가.

뜨거운 추억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수령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오로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현지지도의 한평생이다.

인민들과 함께 계실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인민들을 하루라도 만나지 못하면 허전함을 금치 못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항일혁명의 준엄한 나날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도탄에 빠진 민족을 생각하며 불굴의 신념을 가다듬으시였고 해방된 조국에서 살 우리 인민의 행복을 그려보시며 불멸의 헌신적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의 80평생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의 아들로서 인민을 위하여 바친 투쟁의 한생이라고 할수 있다고, 자신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섰으며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지배한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였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인민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조국의 북단으로부터 분계연선마을까지, 서해의 간석지마을로부터 동해의 바다가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 끝없이 걸으신 현지지도길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의 자욱자욱이였다.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펄에 빠진 승용차를 한치한치 미시며 북방의 어느 산촌을 찾으신 이야기며 한낮이 기울 때까지 여러 농장포전을 돌아보시고 렬차에서 풋강냉이로 때늦은 점심식사를 하신 이야기,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까지 들어가지 않을바에야 무엇하러 광산에 왔겠느냐고 하시면서 석수가 떨어지고 바닥이 질벅한 막장에까지 들어가시여 광부들을 만나신 이야기…

력사의 어느 갈피에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가 새겨져있던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로 위대한 한생을 엮어오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언제인가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잠시나마 휴식을 보장해드리려고 한적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옛말에 《신로군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신하가 일을 많이 하면 임금이 편안하다는 말인데 나는 인민의 신하이고 인민은 우리의 임금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야 인민들이 편안하게 지낼수 있다고 뜨겁게,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인민의 신하이고 인민은 우리의 임금이다!

정녕 그렇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정력적으로 헌신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근 50년전인 주체51(1962)년 1월 9일, 이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현지지도만 놓고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우신 인민의 어버이를 수령으로 모셔왔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날 이른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문도 없이 찾으신 곳은 평양시 중구역의 한 두부공장이였다.

김이 서린 작업장에 스스럼없이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수 그 맛까지 보아주시였다. 그러시고 두부가 맛있게 잘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웠다.

인민들의 밥상에 오를 하나의 부식물을 두고서도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공장을 찾으시고 몸소 맛까지 보아주시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며 두부를 맛있게 만들고 비지도 잘 가공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고서야 공장을 떠나시였다.

이른새벽 이름없는 한 두부공장에 위대한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길로 평양어린이편직물공장을 찾으시였다. 당시 이 공장은 세타, 양말, 내의류를 비롯한 편직물을 생산하는 공장이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기름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생산된 제품들과 자체로 만든 설비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조선사람은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므로 양말색이 좋아야 한다. 어린이 내의를 질좋게,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공장에 가정부인이 대부분이라면 통근거리는 멀지 않는가. …

우리 인민이 다같이 좋은 내의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 녀성들과 아이들이 입고 쓸 옷과 머리수건을 더 많이, 더 곱게 생산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며 오랜 시간 공장의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제는 평양제사공장으로 가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위대한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세계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 맵짠 바람이 부는 대동강가에 이르시여 새로 지을 공장터전을 몸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협의회를 여시고 공장건설방향을 가르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건물은 물론 녀성들을 위해 탁아소, 유치원까지 크게 지어주자고 말씀하시였을 때였다. 한 일군이 어려운 나라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실을 뽑는 경공업공장치고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는것이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근엄하신 안색으로 로동자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자고, 건설비는 로동자들을 위해 할수 있는것을 다해준 다음에 계산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덕망과 사랑에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른새벽부터 점심시간이 다되도록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력사는 재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현지지도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를 다시금 새겨안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모습그대로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며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계신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며 수령님의 혁명령도방식그대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는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쾅쾅 울려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현지지도의 길에 계셨습니다. 우리 나라 그 어디에나 수령님의 발자욱이 어리여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나도 수령님처럼 인민군부대에도 찾아가고 공장길, 농장길을 끊임없이 걸으며 선군정치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이 땅우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고 합니다. …

진정 인민을 믿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백승만을 떨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의 날과 달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고있는것 아닌가.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로 부강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강성대국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며 그 길에서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함주군 조양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할머니에게서 꽃다발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60년 8월)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장장 수십성상에 달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는 당건설과 군건설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수령님식으로 조직령도하여오신 불멸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력사의 준엄한 폭풍을 헤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주체83(1994)년 10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추억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수령님식으로 당건설과 군건설을 비롯한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단위들은 그 어디이건 찾아가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여나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파도치는 바다가초소와 군항을 찾으시여서도, 외진 섬초소와 최전연구분대를 찾으시여서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도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지난 10여년간 이 땅우에 흐른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철저히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령도하시여 조국앞에 드리웠던 시련과 난관의 어두운 장막을 밀어내고 민족만대번영을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성스러운 혁명활동의 뜻깊은 나날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선군으로 존엄높은 이 땅우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진

절세위인의 거룩한 행로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사상과 아버님으로부터 이어받으신 《지원》의 사상을 사상정신적원천으로 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의 지도사상과 리론을 밝히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감옥에서 옥중생활을 하시는 속에서도 혁명활동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으시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혁명운동이 남긴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주체사상의 출발점은 새로운 혁명사상과 리론을 밝히는데서 사상리론적기초로 되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구현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과 투쟁방침들을 하나하나 확정하시였으며 인민대중속으로 들어가시여 그것을 더욱 무르익히시고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신것은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당창건위업의 빛나는 실현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의 3대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북조선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관을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창건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창건을 위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여 지방당조직들을 정비확대하고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묶어세우도록 하시는 한편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창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다그쳐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9월 23일과 24일 국내에서 활동하던 한 일군을 두차례나 만나시여 그에게 국제국내정세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혁명적당창건방침과 그 실현방도를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였으며 평안남도의 당조직들이 로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뿌리박도록 할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거의 매일과 같이 현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으시며 당창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0월 5일 당창건을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시고 당중앙지도기관으로서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였으며 10월 10일에는 력사적인 당창립대회를 여시고 주체의 혁명적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본사기자 렴철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자

평안북도에서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안북도와 락원기계련합기업소, 12월5일청년광산,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궐기모임들이 진행되였다.

평안북도궐기모임에는 김평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종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도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평해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기사장 박원철, 12월5일청년광산 초급당비서 김철용,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방순화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얼마전 평북땅을 또다시 찾으시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급격히 높이고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특색있게 건설된 축구경기장을 돌아보시고 12월5일청년광산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건설은 물론 국토관리사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놀라운 전변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더욱 높이 떨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정연학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기업소의 전체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제품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 기여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으며 일하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산소분리기와 굴착기생산에서 발휘한 투쟁기풍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2월5일청년광산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광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새로운 광구들을 더 많이 전개하고 심부채굴준비를 다그치는데 력량을 집중하며 인민소비품생산에 기여할 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려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며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 광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도입하고 우렁이에 의한 벼농사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두벌농사를 잘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와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어버이의 다심한 은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은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다심한 은정으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해전 어느날이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이 생활하는 합숙에도 들리시였다.

만면에 해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합숙호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산뜻하게 꾸려진 방안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살펴보시였다.

이윽고 침대우에 정히 포개여놓은 이불을 보시고 손수 쓸어보시며 그 두께를 가늠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합숙생들이 두툼한 솜이불을 갖추어놓고 잘 살고있다고, 비행사호실 못지 않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합숙생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있는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주체48(1959)년 3월 바로 이 호실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뵙는것만 같아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에도 합숙생들에게 생활에서 애로는 없는가, 방이 춥지 않는가,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가 등을 다정히 물어주시며 침대우에 놓여있는 담요와 백포도 만져보시고 방을 더 화려하고 깨끗이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기업소에서 옷장과 신발장, 책상들을 새로 만들어주고 방에 습기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서와 합숙관리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일군을 배치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어찌 그날뿐이랴. 기업소를 찾으실 때마다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로동자들의 생활을 세심히 관심하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성강로동계급을 위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합숙생들을 위하여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합숙생들은 목이 메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면장과 목욕탕, 옷수리실 등에 이르기까지 다 돌아보시며 만족하신 어조로 멋있게 잘 꾸렸다고, 마음에 든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일찌기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로동자들을 끝없이 아끼고 위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그대로 사랑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이 세상 천만부모의 심정을 다 합친다 해도 따를수 없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 뜨거운 은정속에 성강의 로동계급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숭고한 뜻 천필마다에 새겨가며

방직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

그리움의 7월이 왔다.

온 나라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7월의 이 아침 남다른 사연을 안은 방직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 마음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눈바람, 비바람 다 맞으시며 공장과 농촌을 쉼없이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경공업혁명수행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방직공업부문 로동계급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러오신 전설속의 천리마가 선군조선의 창공에 더 높이 나래치게 하자!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실현하는 길에 한몸바칠 비상한 각오로 대고조진군길을 힘있게 달려온 이들은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크나큰 자부심에 넘쳐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갈 불같은 열의를 가다듬고있다.

지난해 7월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모시고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을 맞이한 평양방직공장의 미더운 방직공들이 올해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현대화된 생산설비들이 은을 내도록 하는 한편 방직공들이 천필마다에 애국의 마음을 수놓아가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화학섬유종합직장 1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생산정상화의 중요고리로 틀어쥐고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엄격히 세워 모든 기대들을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상반년계획수행에서 앞장섰다. 직포종합직장 4직포직장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전체 성원들이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시고 념원하신 문제들을 한몸바쳐 실현해나가려는 불타는 맹세를 안고 방적종합직장, 염색종합직장, 편직사직장, 타올직장의 방직공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높이고있다. 올해 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정방공 선우옥, 한철옥, 직포공 리명순, 문강순동무를 비롯한 50여명의 자랑스러운 혁신자들이 보무당당히 달려나가고있다.

공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매달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 상반년계획을 남먼저 수행한 신의주방직공장 일군들과 방직공들의 투쟁열의도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공장의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것을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인민생활향상의 중요전선을 지켜선 영예를 자각하고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은 또한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공정간 균형을 보장하고 원료와 자재를 앞질러 보장하면서 생산을 박력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직장장 서란희동무를 비롯한 4직포직장의 직포공들과 3직포직장, 2연사직장 등 공장의 모든 직장, 작업반원들이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기대마다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권사직장 권사공 리윤희, 1정방직장 정방공 한정신동무를 비롯한 많은 로력혁신자들이 년간계획을 상반년기간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현대적인 편직사생산공정을 하루빨리 완성하여 10월의 광장에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설 신심과 열정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 구성방직공장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원산방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오늘의 대고조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차례지게 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노력하고있다. 그들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조건을 마련하고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9월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의 방직공들도 질좋은 여러가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각지 직물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동구호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자기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발해나섰다.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한 삭주직물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술관리,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생산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희천, 수풍, 해주직물공장 등 방직공업부문의 모든 직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총진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어버이사랑 전하는 일터

혜산신발공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주인다운 자각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혜산신발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맞이한 지배인 유영화동무는 멋쟁이생산건물쪽으로 안내하며 공장에 대해 소개하여주었다.

혜산신발공장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사랑속에 림업부문 로동자들을 위한 신발생산기지로 일떠섰다. 지난 기간 공장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그쯘히 갖추고 북부산간지대의 특성에 맞는 겨울신들과 여러가지 신발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왔다. 지난 5월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 생산하고있는 겨울솜신발에 《량강도솜장화》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추운 지방에서 사는 이곳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생산자들을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가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깊은 감동을 안고 우리가 처음 들어선 곳은 재단종합작업반현장이였다. 여러가지 재단설비들이 줄맞춰 놓여있는 일터에서는 로동자들이 누구나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새롭게 창안도입한 형지들을 리용하여 재단실수률을 높이고있다는 재단공들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기대공들의 모습이 돋보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작업모습을 보여드린 김정옥동무의 기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영광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시며 그 방도까지 의논해주시였다.

자신께서 바치시는 크나큰 로고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랑곳 않으시고 로동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문제들은 사소한것에 대해서도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대고조로 끓어번지는 내 조국땅에 보다 휘황한 래일을 펼쳐주시려 외국방문의 8 000여리길을 달려오신 걸음을 또다시 수천리로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이 가슴찌릿하게 밟혀왔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더더욱 훌륭해질 일터를 그려보며 재봉1직장으로 향하였다.

하나하나의 부분품들을 순서에 따라 이어나가는 재봉공들의 작업모습은 볼수록 흥미를 끌었다. 개개로 존재하던 재단품들은 김영심, 박영희동무들의 손끝에서 잠간사이에 맵시있는 솜장화갑피들로 완성되였다.

이들의 일터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솜장화들의 갑피들도 손수 만져보시고 그 두께도 가늠해보시며 리용자들의 편리를 헤아려주시였다고 동행한 지배인은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에게 가볍고 맵시있는 신발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사출작업반과 창사출작업반의 생산현장들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장기사장 리영호동무와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모든 제품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그의 이 말속에서 우리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읽을수 있었다.

우리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사랑의 솜장화와 여러가지 신발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리라 확신하며 공장을 떠났다.

특파기자 전철주

질을 첫자리에 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조선장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잘 살려 군안의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는 함주군장공장을 찾았다.

듣던바 그대로 구수한 맛과 향기 그리고 독특한 색갈로 하여 공장에서 생산된 장은 보기만 하여도 구미가 절로 동하였다.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지배인 박창교동무는 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아글타글 애써온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감회깊이 들려주는것이였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생산능력확장공사에 힘을 집중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몇해전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기초식품공장들에서 전국적인 경공업제품전시회에 출품한 제품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였다.

—우리 공장이 군내 주민들의 생활에 실지 이바지하는 공장이 되자면 생산정상화와 함께 장의 질을 개선하는데서도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공장의 일군들은 종전설비의 부족점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보다 과학적인 생산체계를 세울 때 장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여 장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에 온 공장이 달라붙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장의 질제고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력량을 적극 발동시키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돌린것은 곡자실의 온습도조절문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는 속에서도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고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련계밑에 마침내 콤퓨터에 의한 조종체계를 원만하게 실현하였다. 뿐만아니라 활성이 센 발효균도 받아들임으로써 장맛을 개선하고 생산성도 높이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도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정경철

방문기 증산의 동음속에 커가는 자랑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을 찾아서

덕천시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시안의 일군들을 만나면 제일 큰 자랑으로 이 공장을 짚고 주민들은 그들대로 이 공장의 제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얼마전 덕천시를 찾았던 우리는 날을 따라 흥하는 보배공장의 자랑을 전하고싶어 이곳으로 취재길을 이어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완강한 난관극복의 정신,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하는것이 자력갱생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자력갱생선구자들의 투쟁행로입니다.》

갖가지 과일나무, 꽃나무들이 푸른 잎새를 펼친 마당을 중심으로 규모있게 자리잡은 공장구내에서 우리는 지배인 송칠성동무를 만날수 있었다.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에서 지표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비결을 묻는 우리에게 공장일군은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우리를 생산현장으로 안내하였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일용종합작업반의 현장들이였다. 크지 않은 압연기를 능란하게 다루며 띠모양의 철판들을 뽑아내는 기대공들의 일솜씨도 볼만 했지만 그것을 넘겨받아 《쿵—쿵—》 프레스의 장단에 맞추어 손바닥보다도 작은 여러 규격의 철제부분품들을 련속 찍어내는 로동자들의 손동작은 교예사를 방불케 하였다. 순간에 무둑히 쌓이는 부분품들을 가리키며 공장일군은 이것들로 접철과 식칼 등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려는 작업반원들의 헌신적노력을 그대로 느끼며 우리는 주조1종합작업반의 현장들에도 들리였다.

로동자들의 창조적기백이 그대로 실린듯 한 작업현장마다에는 이곳 시는 물론 도안의 인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각종 가정용품들이 그득 쌓여있었다. 주조현장에서 우리는 잘 익은 용금을 부어놓자마자 어느새 보기 좋은 늪남비가 찍혀져나오는 기대를 볼수 있었다. 지배인은 바로 그 설비가 공장로동자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새로 제작한 프레스라고 이야기해주었다. 프레스를 도입하여 품을 훨씬 줄이면서도 질좋은 남비와 볶음판들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일군의 이야기는 흥하는 일터에 넘치는 창조의 열정을 그대로 담고있었다.

우리는 가공현장에서 반장 강금철동무가 새로 창안한 압착연마기에서 연방 완성되여나오는 늪제품들을 보면서도 가슴흐뭇함을 금할수가 없었다. 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가정용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있다니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지방공업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실천해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를 잘 알수 있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큰 규격의 발브시험생산에 성공하여 지금은 그 생산량을 늘여나간다는 이야기며 시의 도로관리에 기여할 설비도 창안한 이야기…

흥하는 일터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싶었다.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이런 지방공업공장들이 있어 뜻깊은 올해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질것이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리병춘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심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을 수지연필의 질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련계밑에 수지연필흑심건조로의 현대화를 위한 기술준비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고 설비설치와 제작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떨쳐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린 결과 수지연필흑심건조로는 최첨단수준에서 훌륭히 완성되여 수지연필심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

또한 공장에서는 종합가공반을 현실조건에 맞게 새롭게 개조하여 원가를 줄이면서도 연필심물개의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도 열어놓았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편직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대동강가구공장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대동강가구공장창립 60돐 기념보고회가 6월 29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과 공장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대동강가구공장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변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60돐을 맞는 대동강가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9(1950)년 6월 30일 대동강가구공장을 창립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공장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동강가구공장은 창립후 지난 6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현대적인 가구, 건구생산기지로 강화발전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숭고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질좋고 쓸모있는 여러가지 가구류들을 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였으며 최근년간 기술혁명을 다그쳐 가구장식가공의 CNC화와 경영활동의 콤퓨터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높인데 대하여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대동강가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초급당비서 리윤길의 보고에 이어 부지배인 리영호, 작업반장 리광철, 설계원 조금천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이 지난 60년간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밑에 목재가공설비들의 CNC화와 목재건조로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질좋은 가구들의 생산을 늘임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포전경제선동 활발

연안군 도남리 당위원회에서는 구두선동, 예술선동, 직관선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포전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농장벌이 대고조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농근맹해설강사, 방송원, 직관원 등 초급선전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초급선전일군들은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재담, 사이극과 같은 다양한 종목의 예술소품들에 영농실천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경제선동의 실효를 높이고있다.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예술소품공연과 함께 혁신의 새 소식을 전투속보판과 포전방송기재를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는 초급선전일군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농장벌은 언제나 대고조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로농통신원 박창규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 반미군민대회 함경북도와 시, 군들에서 진행

【평양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6. 25미제반대투쟁의 날》 반미군민대회가 함경북도와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참화를 들씌운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수령결사옹위》, 《군민대단결》 등의 구호판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오수용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김성일,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부기사장 정영춘,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송평구역 송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한미화,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위원회 비서 리경식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은 세계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이였다고 말하였다.

미제가 야만적인 폭격과 함포사격으로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 보건시설을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중요생산설비들과 건물들을 혹심하게 파괴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참패를 당하였던 교훈을 망각한 미제침략자들이 오늘도 남조선에 틀고앉아 조선반도에 첨예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있다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인민군장병들과 도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적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내 금속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을 늘이고 선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며 전력, 석탄공업부문에서 보다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 알곡생산을 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시, 군들에서

시, 군반미군민대회들에서는 해당 지역 책임일군들과 각계층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미제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희세의 살인마, 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새 생활이 약동하던 우리 조국땅에 기여든 미제승냥이들이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백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모든것을 재더미로 만든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신계군, 순천시, 회령시, 안변군 반미군민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살륙하였으며 강토를 피로 물들인데 대하여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무고한 생명들을 수많이 앗아갔다고 하면서 신천군, 문덕군, 길주군 반미군민대회 참가자들은 양키들을 우리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쑤, 살인악마들로 락인하였다.

고성군, 개성시, 문천시 반미군민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강도적인 침략전쟁, 인간대학살전쟁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하면서 1950년대에 감행한 미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을 총결산하고 민족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의지를 표명하였다.

백암군, 풍서군, 명천군 반미군민대회들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미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한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연설자들은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대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폭로규탄하였다.

미국이 괴뢰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리명박역적패당을 동족대결에로 내몰면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만일 원쑤들이 끝끝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와 낫, 붓을 억세게 틀어쥐고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거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세기를 이어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반미반괴뢰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대회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반미시위들이 진행되였다.

넓어지는 조국의 대지에 새겨온 참된 삶의 자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2중3대혁명붉은기 다사기계화사업소 지배인 김성옥동무

누구나 쉽게 결심할수 없는 간석지건설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친것만으로도 뭇사람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는 공로라고 말할수 있다. 김성옥동무는 17살부터 60나이가 지나도록 날바다를 가로막아 새땅을 얻어내는 일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 간석지건설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앞에 지닌 사회적의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에 우리 인민만이 지니고있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미가 있다.》

김성옥동무의 40여년 로동생활의 공로를 따지면 신도간석지로부터 시작하여 다사도간석지, 홍건도간석지, 서호간석지, 1계단 곽산간석지와 대계도간석지에 이르는 몇개 군의 경지면적과도 맞먹는 새땅이 나온다. 이 땅을 얻어내기 위해 다지고 쌓은 바다제방길이만 해도 연 250리에 달한다.

땅은 넓이로 계산할수 있지만 거기에 바쳐진 간석지건설자의 한생은 무엇으로 계산할수 있을것인가.

제방 1m를 전진시키는데 중량급화물자동차 1 000대분의 돌과 흙이 들어간다고 한다. 조국의 지도를 넓혀준 새땅밑에 그보다 몇십배로 더 크고 깊은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간석지건설자의 애국의 세계이다.

초석은 보이지 않는다

—간석지건설자는 가슴속에 굳건한 신념의 초석이 없으면 바다를 막지 못한다.

이것은 김성옥동무가 1960년대 중엽 신도간석지개발을 위해 자원진출한 때로부터 오늘 한개 기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해오는 나날에 터득한 좌우명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가장 치렬한 대결전이라고 말할수 있는 간석지건설은 무엇보다 자기자신과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초가 약한 제방처럼 잔파도에도 쉽게 무너지는 신념은 난관과 시련의 《해일》을 결코 이겨낼수 없다.

김성옥동무가 자동차운전사로 일하던 어느해 여름이였다. 방조제마감막이구간에 사석을 운반하고있는데 갑자기 태풍으로 바다물결이 높아지면서 채 다져지지 않은 제방끝부분을 사정없이 무너뜨리였다.

그런 속에서 막돌을 부리우던 10t급자동차 몇대가 어쩔새없이 바다물속에 말려들어갔다. 공사장의 공기는 삽시에 팽팽해졌다.

누구도 그쪽으로 자동차를 들이댈 생각을 못하였다. 일군들도 공사의 중단과 추진문제를 놓고 선뜻 결심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김성옥동무가 번개같이 자동차에 뛰여올라 발동을 걸었다. 사람들이 막아나섰다. 그러나 김성옥동무는 자동차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도 불뿜는 적의 화구를 맞받아나아가는 용사의 모습과도 같았다.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그 순간, 김성옥동무의 눈앞에는 감탕에 무릎까지 빠지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간석지건설장을 찾아주셨던 어버이수령님과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적는 일군의 머리우에 친히 우산을 펼쳐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삼삼히 떠올랐다.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시기에 간석지건설에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것이 아니랴.

그렇듯 귀중한 조국의 한치땅을 위해서라면 한생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것이 간석지건설자의 애국임을 김성옥동무는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주체86(1997)년 8월에 들이닥친 100년래의 해일피해는 김성옥동무를 비롯한 간석지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밑뿌리까지 검증한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나날이였다.

초당 바람속도 40m, 물결높이 8~9m로 밀려든 해일은 10여년간 애써 막은 제방을 토막내며 무섭게 날치였다. 세찬 파도로 수백t급선박들이 통채로 제방너머로 날아갔고 뚝우에 서있던 굴착기들은 순식간에 바다물이 휩쓸어버렸다.

자연의 이런 광란속에서 바다에 떠있는 해상설비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던 김성옥동무는 마지막으로 남은 해상굴착선과 함께 날바다의 포위속에 들게 되였다. 점점 더 높아지며 기승을 부리는 파도로 하여 해상굴착선을 구원할 가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어떤 설비인가. 《고난의 행군》을 겪는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우리에게 안겨준 귀중한 무기가 아닌가!)

김성옥동무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조종칸으로 들어갔다. 로동자들이 지배인을 둘러쌌다.

《안됩니다. 우리들은 이미 각오하였으니 지배인동무는 물으로 오르십시오. 지배인동무가 있어야 제방을 다시 복구할게 아닙니까!》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김성옥동무의 벼락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누가 죽는다는거요? 짠물을 그만큼 먹었다는 사람들의 배짱이 그게 단가. 제방은 다시 쌓을수 있지만 사람의 속이 흔들리면 그땐 끝장이요!》

그 말에 로동자들모두가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들은 김성옥동무의 지휘에 따라 밤새도록 태질하는 파도를 타고넘으며 결사전을 벌리였다. 하여 끝끝내 굴착선팔을 제방의 안전한 곳에 드리우고 바줄을 늘이는데 성공함으로써 설비도 사람도 모두 구원될수 있었다.

해일로 파괴된 방조제를 몇해째 원상복구하는 전투는 마감막이고비에 이르면서 더욱 간고해졌다.

100~200m밖에 안되는 마감막이구간으로는 하루에도 몇번씩 초당 수만㎥의 바다물이 무서운 힘으로 드나들면서 품들여 쌓아놓은 제방을 한순간에 집어삼키군 하였다. 마감막이에 제일 적합한 시간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령으로 되는 20분간뿐이였다. 만약 이 시간에만 매달린다면 제방복구는 100년이 걸려도 끝을 볼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부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다가 나라의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막자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달의 인력을 차단하기 전에는 안된다고 머리를 저었다. 복구전투장을 찾았던 외국의 한 기술자는 큰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 모든 잡소리에 김성옥동무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였다.

《그건 조선말이 아니요!》

김성옥동무는 로동자들의 앞장에서 날바다와 맞섰다. 제방을 수백번이나 다시 쌓았다. 이런 불굴의 신념과 의지앞에 횡포한 바다도 끝내 머리를 숙이고야말았다. 조국의 지도에는 새로운 땅이 생겨났다. 그 땅밑에 무엇이 뿌리가 되여 묻혀있는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애국과 량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전후로 하여 벌어진 대계도간석지건설은 우리 나라 간석지건설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의 격전이였다. 이 시기는 김성옥동무가 물질기술적토대가 빈약한 신설사업소의 지배인사업을 해온 나날이기도 하였다.

모든것이 부족해지자 간석지건설의 주공을 맡고있는 사업소의 기계화설비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공사실적도 떨어졌다. 사람들도 점차 맥을 놓기 시작했다. 수십년간 간석지건설을 해온 김성옥동무에게도 이때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

그는 지나온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생각하였다. 바다한복판에서 식량이 모자라면 조개를 잡아 끼니를 에우면서 작업을 멈추지 않은적도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는 외진 돌섬에서 물이 떨어져 바다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어쩌다 배로 날라오는 물이 도중에 다 얼어 배낭으로 얼음을 져날라다 녹여 자동차랭각기에 먼저 넣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난관은 그때보다 더 어려웠다.

이때 김성옥동무의 귀전에는 한생토록 잊을수 없는 사연깊은 비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비바람사나운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적는 일군의 머리우에 우리 장군님께서 펼쳐주셨던 사랑의 우산, 그 우산을 두드리던 비방울소리가 김성옥동무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간석지건설을 공업화, 기계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자동차운전사면허증을 받아안고 나라의 땅을 넓히는 일에 뼈가 휘도록 한생을 바치는 애국자가 되리라 마음다졌던 그날의 맹세가 되새겨졌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에서 무엇을 주면 일을 하고 주지 못하면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나라에 손을 내밀어 새땅을 얻을바에야 무슨 간석지건설자이겠는가. 간석지건설자는 제 뼈심과 땀으로 나라의 땅을 늘여가는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량심의 목소리에 김성옥동무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기업소에 륜전기재수리기지를 꾸리는 일에 달라붙었다. 자동차운전사로부터 작업반장, 직장장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익힌 풍부한 기술기능이 발동되여 은을 내였다. 모자라면 얻어내고 없으면 만들어냈다.

사업소의 기계화수단들이 하나하나 가동하기 시작하자 건설장은 다시 새로운 활기를 띠였다. 제방이 다시 바다한복판을 꿰질러가기 시작했다. 그 한m, 한m에 김성옥동무와 로동자들은 조국에 바치는 간석지건설자의 량심을 묻었다.

어느날 제방공사장에 나가 수송전투를 지휘하던 김성옥동무는 바다가운데로 뻗어간 제방끝에서 자동차들이 줄지어 막돌을 부리우고는 서로 어기며 빠지느라 몹시 붐비고있는 광경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모았다. 여기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연유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머리를 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건설기일을 더욱 앞당기고 나라의 부담도 덜수 있었다.

김성옥동무는 사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합치였다. 얼마후 제방공사장에는 《자동차돌림대차》라는 간단하면서도 능률적인 새로운 장치가 출현하였다. 자동차들의 막돌운반실적은 근 2배로 높아졌고 귀중한 연유를 한해에 수십t, 지금까지 모두 수백t이나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간석지제방공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해상굴착선은 제작할 때부터 팔이 10여m를 초과할수 없는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제방건설속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이 해상굴착선으로는 륙상과 해상에서 각이하게 진행되는 작업의 균형을 좀처럼 보장하기가 어려웠다. 결정적으로 팔길이를 늘구어야 하였다.

전문기계공장에 의뢰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성옥동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소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팔이 긴 해상굴착선은 다름아닌 우리에게 필요한거요. 주인들만이 필요성을 가능성으로 만들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수 있소.》

그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수십번의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해상굴착선의 팔을 근 30m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이런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을 두고 뛰여난 두뇌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이라고 쉽게 말할수 없다. 그것은 간석지건설자의 애국의 량심이 낳은 소중한 열매였다.

김성옥동무를 두고 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한결같이 《우리 지배인》이라고 부른다. 대중이 안겨준 그 소박한 평가를 김성옥동무는 그 어떤 표창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바다를 길들이자면 지구의 인력과 같은 거창한 힘이 필요하듯이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자면 수백수천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안을수 있는 크고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중앞에 설 때마다 김성옥동무가 되새겨보군 하는 자기 식의 지론이다. 그는 늘 자신이 지배인이기 전에 수백수천명의 식솔을 맡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있다.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된 문제라면 그것이 크든작든 스스로 걸머지고 뛰여다니는 김성옥동무에게 누구나 스스럼없이 찾아오군 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소금기가 많아 당장은 안된다고 하던 간석지농사를 먼저 발기하고 실천하여 오늘 사업소 종업원들의 생활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나라의 쌀독도 채워나가고있다.

지난해 7월 어느날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이곳 건설자들이 개간한 푸르른 논벌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편들은 바다에 나가 제방을 쌓고 안해들은 농사를 짓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참으로 과분한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이날 많은 혁신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촬영을 하는 김성옥동무의 흐려진 눈앞에는 왜서인지 수십년전의 그날 간석지에 몰아치는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영상이 안겨왔다.

40여년세월 걸음걸음 따라선 난관과 애로, 아픔과 고충을 이겨내게 한 힘이 무엇이였는가를, 얼마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 간석지건설자인 자기의 한생을 지켜주고있었는가를 그는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준 김성옥동무는 새로 시작된 곽산간석지 2계단공사장에 지금까지 새겨온 참된 삶의 자욱자욱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석지건설자로 한생을 살아온 그의 공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김성옥동무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바다를 막아 땅을 얻어내는 간석지건설은 뿌리없는 땅을 뿌리깊은 땅으로 만드는것과 같습니다. 우리 장군님처럼 번영하는 조국의 뿌리가 되자는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간석지건설자의 한사람일따름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원석

김성옥동무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평양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6월 30일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근로자들과 상봉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6월 30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상봉하였다.

상봉에서 발언한 농업근로자들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으로 찾아온 목사를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남조선괴뢰당국이 목사의 의로운 평양방문을 문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할자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이라고 주장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긍지를 안고 농업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남녘의 농민들과 힘을 합쳐 6.15를 지키고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목사는 남과 북의 농민들이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우리 조국강토우에 통일평화의 씨를 뿌리고 훌륭히 가꾸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진행된 평양326전선공장 로동계급과의 상봉모임에서 한상렬목사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의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통일애국운동을 벌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남북의 로동자들이 앞으로도 선봉에 서서 6.15를 살리고 통일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발언한 공장근로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리명박역적패당의 죄행을 단죄하며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녘의 로동자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남녘의 로동자들과 굳게 손잡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목사는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과 상봉하였다.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상봉

이란대사관 성원들 립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머르테자 머로디욘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6월 30일 문덕군 조선이란친선 립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을 돌아본 다음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강냉이밭김매기를 하였다.

그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을 참관하고 어린이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았다.

특명전권대사는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훌륭한 작황이 마련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영농물자를 넘겨주었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신길웅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6월 3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진시에 차넘친 가극 《홍루몽》열풍, 뜨거운 친선의 정

중국의 4대직할시의 하나인 천진시에서 가극 《홍루몽》공연이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시의 당과 정부,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6월 25일과 26일 공연이 진행된 천진대극원은 관람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난 후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이 전달되였다.

관중은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천진시당 서기 장고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얼마전 우리 천진시를 찾아주시였다. 이어 피바다가극단이 가극 《홍루몽》을 가지고 천진을 방문하여 공연하였다.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나는 천진시당과 정부 그리고 1 300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피바다가극단의 천진방문공연을 열렬히 환영한다.

가극 《홍루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이 깃든 작품으로서 중조외교관계설정 60돐을 맞으며 재창조되였다. 공연은 우리 천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예술적향유를 안겨주었다.

조선예술인들이 중국고전명작을 완벽하게 리해하고 성공적으로 형상한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가극 《홍루몽》은 원작에 담겨진 내용을 간단명료하면서도 원만하게 잘 보여주었다.

원래 천진은 《희곡의 고향》으로서 관중의 예술감상수준도 매우 높다. 출연자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박수갈채는 관중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찬사이다.

천진시당 선전부장 초회원은 높은 예술형상수준을 보여준 가극을 관람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극세계에 잠겨 연기에 열중하는 출연자들의 기풍은 우리가 따라배울만 한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극대본, 작곡, 연출, 연기, 성악, 연주, 무용, 조명, 무대미술 등 모든것이 잘되였다. 나도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창작공연된 여러가지 예술형식의 《홍루몽》을 보았다. 그러나 가극 《홍루몽》처럼 잘 형상된것은 보지 못하였다.

조선은 예술이 발전된 나라이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있다.

앞으로 조선의 예술작품들이 천진시에 더 많이 오기 바란다.

중조우호협회 리사 량동군은 공연이 정말 훌륭하다, 지난해 평양에서 가극을 관람한적이 있는데 다시 보니 과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천진시의 주요출판보도물들도 피바다가극단의 도착과 공연소식을 매일과 같이 대서특필하였다.

《천진일보》 6월 25일부는 《조선관가극 〈홍루몽〉 중국인민에게 보내온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조 중국대사관 문화참사와 문화서기관의 글을 실었다.

중국의 고전명작이 지난 시기 영화, TV극, 월극, 무용극으로 형상된적은 있으나 가극으로 무대에 오른것은 처음이라고 서두를 떼고 필자들은 가극 《홍루몽》이 조선의 최고령도자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으며 중조친선의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의 예술인들은 압록강을 건너와 중국인민에게 가극 《홍루몽》을 보여주고있다.

중조 두 나라 령도자들의 친분관계와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이 친선의 꽃은 두 대지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여날것이다.

신문 6월 26일부는 《성대한 공연으로 꿈속의 이야기를 펼쳐보이다》라는 제목의 관평에서 조선의 국보급예술단체인 피바다가극단이 천진대극원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가극을 펼쳐보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각이한 미술수단에 의한 황홀하고도 진실한 무대효과, 우아하고도 류창하며 관중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독특한 음악, 류다른 풍격의 뛰여난 성악,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연기 그리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무용 등은 관중에게 한없이 고상한 예술적감명을 안겨주었다.

격동된 관중은 뜨거운 박수갈채로 조선예술인들에 대한 찬탄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비록 배우들은 조선말로 노래를 부르지만 관중은 원작의 줄거리와 내용을 존중하고 모든 면에서 전형적인 중국문화의 모습을 그려낸 가극을 보며 새로운 느낌을 주는 《홍루몽》을 저도모르게 사랑하게 되였다.

신문은 글과 함께 가극장면사진들을 편집하였다.

한편 시에서는 피바다가극단을 위해 당과 정부, 공안기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로 강력한 력량을 꾸리고 영접과 숙식, 공연보장을 위하여 최대의 성의를 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희천땅에 꽃펴나는 원군미풍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 원군미풍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끊임없는 기적과 비약을 창조해가는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원군열의는 날로 뜨거워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며 원군의 미풍속에 선군시대가 빛난다.》

올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룡림언제건설장을 찾은 금야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본때를 힘있게 떨쳐줄것을 군인건설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와 각 도의 녀맹일군들은 지난해 12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일과 올해 태양절을 맞으며 8만여점의 생활필수품과 많은 량의 식료품을 비롯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룡림언제건설장에 찾아가 온 나라 어머니들의 기대와 당부를 잊지 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관철에서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지난 건군절을 맞으며 많은 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건설장을 찾은 무역성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군인들에게 전화의 나날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하였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남김없이 떨쳐 언제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자고 호소하였다.

자기 단위 종업원들의 뜨거운 원군의 마음이 어린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발전소건설장을 찾은 어느 한 지도국의 아래단위 일군들인 정동광, 리세권동무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일당백정신을 높이 떨쳐나갈것을 군인들에게 당부하였다.

송병건동무를 비롯한 만포시의 어느 한 단위 일군들과 가족들은 성의껏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를 가지고 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 호소성이 강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일군인 조재영동무와 9월방직공장 일군인 최창범동무는 로동계급의 뜨거운 원군의 마음이 어린 많은 설비들과 생활필수품을 군인건설자들에게 넘겨주면서 기계화전, 립체전을 힘있게 벌려 건설전투에서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고무해주었다.

평성시 삼화협동농장 농장원 최화숙동무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많은 원호물자를 가지고 발전소건설장에 찾아가 군인들에게 안겨주면서 일당백정신을 더욱 높이 떨칠것을 호소하였다.

이밖에도 전천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전수룡, 룡림군 룡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명옥,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학생 최경식,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 초급청년동맹비서 리승원, 강계농림대학 농학부 학생 리성일, 강계제1중학교 학생 김경석, 향산군 읍 61인민반 장련옥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지성껏 준비한 원호물자를 가지고 건설장에 찾아가 군인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들은 들끓는 건설장들에서 여러가지 형식의 경제선동활동도 진행하여 눈부신 기적과 위훈으로 날과 달을 이어가고있는 군인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활짝 꽃펴나는 원군미풍은 군민단결의 위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보물수첩》에 비낀 지향

단천시 양평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렴성학동무

《우리 관리위원장동무에겐 수첩들이 많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었지만 귀중한 〈보물수첩〉들이랍니다.》

양평협동농장을 찾았던 우리에게 한 리당일군인 최춘호동무의 말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보물수첩》의 첫장에는 협동농장에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적혀있었다. 40여년전 양평땅을 찾으시여 농장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면서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렴성학동무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고있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문제들로부터 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리는 문제, 농장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수첩들을 보느라면 관리위원장의 사색의 폭과 깊이를 잘 알수 있다. 하기에 그 수첩들을 두고 농장원들은 하나같이 《보물수첩》이라고 하는것이리라.

양평땅의 참된 주인이 되려는것이 렴성학동무의 지향이다.

양평땅에 첫걸음을 새기던 20여년전부터 그는 모든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많은 면적의 포전에 흙깔이를 하고 거름생산을 늘여 지력을 훨씬 높인 덕에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것은 그의 높은 사업의욕의 결과이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대학, 전문학교졸업생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과정에 농장에 집단주의미풍이 더욱 활짝 꽃펴나게 되였다.

규모있게 일떠선 전기화된 살림집들이며 아담하게 건설된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과 농기구창고, 감자저장고, 축산기지, 버섯생산기지, 문화후생시설 등을 다 갖춘 작업반건물들이 손색없이 꾸려지게 된것은 렴성학동무의 완강한 전개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모범체육농장, 모범축산농장, 2중26호모범기대농장의 영예를 떨쳐가는 양평협동농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받았다.

하지만 렴성학동무는 만족을 모른다. 더욱 아름다울 양평땅의 래일이 《보물수첩》에서 설계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의 위험성

최근 조선반도정세가 초긴장상태에 처해있다.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한 미제는 그것을 걸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무모하게 벌리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전쟁문어구로 돌입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사태는 미제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정책에 기인된다.

1

세계제패는 미제의 변함없는 전략이다. 반동적세계전략을 추구하는 미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국의 리익》을 위한 《사활적인 지역》으로 여기고있다.

오늘 미국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특별히 중시하면서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는 국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것만큼 우리의 정책은 미국이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것으로 될것이다.》라고 떠벌이였다.

이보다 앞서 미외교당국자는 하와이의 호노룰루에 있는 동서방쎈터에서 연설하면서 일본, 남조선 등과의 《우호 및 동맹관계》강화, 《국제적도전》들에 대한 《공동대처》, 아시아나라들과의 《협조구축》과 《다무적관여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정책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미래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계되며 미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달려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라고 하였다.

미국고위관리들의 발언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튀여나왔지만 그 본질은 일맥상통하다. 그것을 쥐여짜면 미국의 오늘의 존재뿐아니라 《미래》의 운명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달려있기때문에 이 지역에 《지역강대국》인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는것이다.

《지역강대국》이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쟁자, 도전자들을 군사적으로 압박, 견제하고 패권적지위를 차지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라고 한것은 미국의 그러한 야심을 뻐젓이 내비친것이다. 미국이 그 무슨 《우호 및 동맹관계》를 표방하는것은 추종국, 앞잡이들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합법적인 도구로 써먹자는것이다. 미제는 《협조구축》과 《다무적관여확대》의 미명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제기되는 정치, 경제, 군사문제들에 더 깊이 관여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유화와 미소외교, 간섭의 방법으로 지역나라들을 저들의 지배권안에 끌어들이고 침략과 략탈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전략이다.

미반동지배층은 오래전부터 《태평양의 통치권은 반드시 미국에 속해야 한다.》, 《태평양과 아시아는 마땅히 미국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독점적지배권확립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보인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미제의 야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의 전진운동에 장애로 되고있던 랭전은 종식되였으나 자주의 흐름에 역행하여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여보려고 하는 낡은 세력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힘에 기초한 미제의 세계전략의 기본전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미집권계층의 《지역강대국역할》론은 미국의 힘의 정책의 주되는 방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설정하고 침략과 전쟁, 간섭책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것을 공식선언한것으로 된다.

최근년간 미국은 힘의 정책의 기본대상을 《반테로전》의 전초선으로 되고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정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였다. 그 당면목적은 국제적으로 대미군사적위압감과 공포를 조장하고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것이였다. 현시점에서 미국은 《반테로전》의 초기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 기본무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려 하고있다. 여기에는 아시아정복,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의 전략적의도가 함축되여있다.

미강경보수파의 주요인물인 브레진스키는 세계지배를 위하여 견지해야 할 원칙에 대해 이렇게 떠벌인바 있다.

《미국이 세계적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전역에 자기의 존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 세 지역은 첫째로 동서유럽이 부딪치는 도이췰란드지역, 둘째로 미쏘간의 군사력이 충돌하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 셋째로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지역이다. 이곳에서 미국의 지배를 공고히 해야 세계제국이 될수 있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도이췰란드지역,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 동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는것이 전략적우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제패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강하게 의식하고있다. 그들은 도이췰란드지역문제가 이미 해결된 조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그중에서도 조선반도가 포함된 동북아시아지역을 힘의 정책실현의 주공전선으로 여기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정학적 및 전략적면에서 미국이 절대로 홀시할수 없는 지역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잠재적인 경쟁적수로 되고있는 대국들이 집중되여있다. 인구수에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이 지역에서는 반제자주력량, 사회주의력량이 주력을 이루고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강화발전하고있는 곳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책략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확보여부에 따라 저들의 세계전략의 승패가 좌우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힘의 정책, 세계전략실현의 기본전선으로 삼고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시아태평양정책은 미제의 21세기 세계정복전략의 중핵이며 기둥이다.

미제는 무엇보다도 아시아태평양정책을 통하여 힘으로 이 지역의 대국들을 누르고 세계《유일초대국》지위를 유지강화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지난 몇해동안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테로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아시아지역에 관심을 덜 돌리였다. 반면에 다른 대국들은 아시아지역에 적극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이에 위구심과 불안을 느낀 미국은 이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고있다. 《반테로전》을 통해 이미 틀어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하나의 전선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을 다른 한 전선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고 억제와 압박작전을 강화하려는것이 미제의 음흉한 기도이다. 말하자면 미국을 《지역강대국》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지배체계를 수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마음대로 주물러대자는것이다. 미국의 《지역강대국》론은 세계 《유일초대국》론의 변종이다. 그것은 또한 현대판 아시아지배, 세계지배론이다. 요컨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정책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세계정복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관문인 조선반도를 완전히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할수 없다고 판단하고있다. 조선반도를 장악하여야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세계를 정복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전략적의도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추종국들과의 《우호》와 《동맹관계》강화를 특별히 중시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억제력강화에 커다란 힘을 넣는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부 추종국들이 미국의 《안보우산》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경향을 심중하게 검토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 경우를 두가지로 볼수 있다. 하나는 미국이 추종국들에 대한 《안보우산》제공을 중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안보우산》제공이 계속되여도 이 나라들이 그것을 신뢰하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미국이 우려하는것은 후자의 경우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별동대로, 척후병으로 내세우려 하고있다. 만약 이들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미국의 통제권에서 떨어져나가면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관계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들을 배후조종하여 조작한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대미추종정책변화경향을 보이던 일본의 하또야마정권을 강경압박하여 매장시켜버린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제는 《우호 및 동맹관계》강화라는 간판밑에 일본과 남조선을 저들의 《안보우산》안에 더 단단히 얽어매는것과 함께 동남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침략기구를 내오고 그것을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체계와 련결시켜 아시아판나토를 창설하여 세계정복전략의 지레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포위, 압살하기 위해 다국적무력을 발동하려 하고있다. 《국제적도전공동대처》라는 구호는 그를 위한것이다. 미제는 《국제적안정》과 《미국의 리익》에 대한 《위협》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위기사태조성》에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들을 무력으로 짓뭉개버리려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공동대처》라는 미명하에 침략적공동군사행동을 감행하자는것이다. 미국의 《공동대처》에는 그 대상과 계선이 정해져있지 않다. 미제는 어느 한두개 나라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모든 나라들을 저들 주도하의 다국적무력의 개입대상으로 삼고있다. 《국제적도전공동대처》는 미제의 세계정복전략의 연장이다. 그것은 침략적인 《십자군원정》의 현대판이다. 미제는 이 구호밑에 저들에게 추종하는 나라들의 다국적무력을 동원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주되는 과녁으로 하는 현대판《십자군원정》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로서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의 반동성과 엄중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아시아태평양정책에는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경제적지배와 자원독점야욕이 반영되여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정치, 경제적관계를 밀접히 해나가고있다. 이 지역에서 경제장성속도가 빨라지고있다. 소비자들의 수요도 늘어나고있다. 아시아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방대한 시장을 요구하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의 구미를 돋구어주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풍부한 전략자원을 가지고있다. 페르샤만지역은 유망한 원유, 천연가스산지이다. 아세안지역은 천연고무, 주석 등에서 손꼽히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륙붕과 바다밑에는 막대한 원유와 유색광물자원이 있다. 미국은 이처럼 풍부한 전략자원을 장악하여야 침략과 군사적간섭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군수공업의 원료, 연료를 충당하고 경제장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 미제의 사고관점은 미국경제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저들이 살아갈수 없고 세계정복전략실현도 불가능하다는것이다. 때문에 미제는 《협조구축》과 《다무적관여확대》의 간판밑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을 저들의 안정된 원료 및 연료공급지로, 상품판매시장과 자본투하지로 거머쥐려 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독점이자 세계자원독점이다. 미국의 세계문제 및 세계안전문제연구사 클레이는 대규모자원전쟁에 대하여 력설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의 세계자원독점정책실현의 기본무대로 지목되고있다. 미제는 자원전쟁의 방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자원독점권과 경제적지배권을 확립하고 그에 의거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정복하려 하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21세기 세계《유일초대국》야망에서부터 출발한 강도적인 침략과 전쟁정책, 힘으로 자주와 진보,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파렴치한 지배주의정책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수 없습니다.》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그 침략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위험성은 우선 새로운 군비경쟁, 랭전을 몰아온다는데 있다.

원래 군비경쟁, 랭전정책은 미제의 침략적대외정책, 세계제패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군비경쟁과 랭전을 조장격화시키는것을 통하여 침략과 간섭의 구실을 마련하고 지배권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이로부터 미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수백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수십만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다. 그 대부분 무력이 북태평양으로부터 남조선과 일본, 팜도를 거쳐 인디아양과 홍해에 이르는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결되여있다. 이곳에는 미항공모함 11척중 6척이 배치되여있으며 그밖에 각종 함선 200여척, 핵무기 6,500여개 등이 전개되여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병력수와 군사장비는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지역수준을 훨씬 뛰여넘어 최대규모에 이르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미국이 힘에 의거한 아시아태평양정책에 얼마나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전략무기배비밀도가 가장 조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미군무력이 계속 전개되면 군사전략적균형과 안정이 심히 파괴될것이다. 그것이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군비경쟁을 일으키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무력강화와 현대화에 힘을 넣고있다.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의 위험성은 또한 첨예한 군사적대결구도를 형성한다는데 있다.

미국이 떠드는 일본, 남조선과의 《우호 및 동맹관계》강화는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침략적결탁인 동시에 군사적대결구도수립책동이다. 우리 나라를 《위험국가》,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압살하는것을 정책화한 미제는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을 그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있다. 미제의 조종하에 추진되고있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조선반도《유사시》 북침전쟁에 일본《자위대》무력을 동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가 《천안》호침몰사건이 터지자 일본을 부추겨 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적극 편승하게 하고 《국제적협력》에 공조하도록 하고있는것은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동맹조작을 전제로 한것이다. 미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나라들을 싸다니며 그 무슨 《긴밀한 련대》에 대하여 줴친것은 심상치 않은 행동이다. 명백한것은 아시아판나토조작의 륜곽이 드러나고있다는것이다.

나토는 랭전종식후 미국에 의한 대로씨야포위환전략에 따라 동유럽지역에까지 확장되였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조선,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과 군사적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지역군사뿔럭을 내올 심산이다. 미제는 이것을 통해 저들 주도하의 군사뿔럭들을 동서 두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한 주요고리의 하나로 조작되고있는 아시아판나토의 위험성은 어떤 의미에서 나토보다도 크다고 할수 있다. 나토에는 아직 미싸일방위체계수립문제가 공식화되여있지 않다. 그러나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관계의 틀거리안에서는 이 체계수립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나토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이 없으나 미국과 일본,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을 핵, 미싸일 등으로 선제공격하고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계획실행에 다같이 참가하게 되여있다. 바야흐로 그 실체가 부각되는 아시아판나토는 나토에 비해 침략적이고 간섭적인 성격이 더 강하며 그 수단과 작전구상이 보다 구체화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을 축으로 하는 반동적군사뿔럭이 조작되고 실제로 가동하는 경우 랭전시대에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 위험한 군사적대결구도가 형성될것이다. 그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쟁을 포함한 파국적인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

미제는 사회주의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그를 돌파구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정복전쟁을 일으키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미군무력의 집결과 재편성배비책동은 여기에 총복종되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유사시》 5,000문의 포, 60여척의 전투함선, 수백대의 전투기, 수많은 각종 미싸일, 제7함대를 동원하는 한편 하와이, 팜도,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미국본토의 무력을 포함한 69만명의 침략군을 투입하려 하고있다. 미제2사단의 타격력과 기동력을 훨씬 높여 원거리작전까지 수행할수 있는 《미래형사단》으로 재편성한 상태에서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이 한강이남지역으로 이동전개되고있다. 이에 병행하여 주일미군무력이 《신속기동군》으로 재편성되고있다. 중장거리타격작전으로 전쟁상대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것을 새로운 전쟁수법으로 내세우고있는 미제는 일본과 그 주변에 미싸일방위체계를 대대적으로 구축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제의 새로운 조선전쟁, 세계정복전쟁흉계에 따른것이다.

미제가 추구하는 대조선전쟁전략은 곧 핵전쟁전략이다. 핵무기를 전략적기둥으로, 힘의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수단으로 삼고있는 미제는 핵선제공격을 조선전쟁의 기본방식으로 정하고있다.

미제의 핵전쟁계획에 따라 지금 남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핵무력이 집결되여 우리 공화국을 겨누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보유하고있는 1,000여개의 핵무기수는 유럽지역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수의 5배이상에 달한다.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지휘권한은 이미 현지 미군사령관들이 가지고있다.

나토에는 이와 같은 핵작전지휘권이 부여되여있지 않다.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나토성원국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결심만 하면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을 벌릴수 있게 되여있다. 실지로 미호전세력은 핵씨나리오를 연출하고있다. 현시기 핵전쟁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은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반도이다.

미국이 대규모의 핵무력을 동원하여 매해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얼마전 미국의 오바마정권은 그 무슨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것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다시금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미제가 우리를 핵조준경안에 두고있는것만큼 조선반도에서 언제 어느 시각에 핵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미제는 지난 시기 우리의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경제적고립과 질식, 심리전, 군사적압박 등 각종 수법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써볼수 있는 수는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는것뿐이다. 그러자면 그럴듯한 구실과 명분이 필요하다. 미제가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을 날조하여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조선반도정세를 폭발계선으로 이끌어가고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세계정세와 지역정세는 호상 련관되여있다. 매개 지역정세는 세계정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조선반도정세악화로 아시아와 세계정세가 긴장해지고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있다. 그 화근은 미제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정책에 있다. 미제가 아시아태평양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사태는 보다 심각해지고 무장충돌과 전쟁은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의 반동성과 위험성을 똑바로 간파하고 그것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자주성과 평화를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긴다.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와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이 정의의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할것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각성되여있는 아시아인민들은 미제의 반동적아시아태평양정책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제는 자주와 진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을 절대로 억누를수 없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결하여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시아를 건설하려는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김 종 손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락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 녀성들모두가 《친정집》, 《요람》이라고 정담아 부르는 평양산원에서는 오늘도 많은 녀성들이 온갖 사랑과 정성속에 귀여운 아기들을 받아안고있다. 보석주단을 밟으며 기쁨과 행복속에 아기를 안고 나서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이 깊어지군 한다.

며칠전에도 대성구역에서 살고있는 리옥경녀성이 바로 그렇게 산원문을 나섰다. 그를 보는 나의 가슴은 뭉클했다.

임신성고혈압에 뇌출혈까지 합병되여 생사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던 그가 17일만에 이렇게 완치되여 귀여운 옥동자를 안고 웃고있었던것이다.

그의 몸에 아낌없이 흘러든 3 000㎖의 피와 각종 수액제들, 뇌대사부활제를 비롯한 값비싼 고가약들, 사랑의 꿀과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국가의 혜택을 받아안았는지 다는 모르고있을것이다. 더구나 자기가 쓴 약들의 값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있을것이다.

리옥경녀성의 행복넘친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 갔을 때 체험했던 일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내가 우리 대표단과 함께 그 나라의 어느 한 병원에 갔을 때 수술실에서는 한 산부에 대한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한편 수술실밖에서는 산부의 가족들이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며 서성거리고있었다.

얼마쯤 지나서였다. 한 의사가 수술실에서 급하게 나오며 가족측을 찾았다. 그리고는 돈이 있는가부터 물었다. 방금 수술을 받은 산모가 심하게 출혈하는데 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것이였다.

보매 방금 태여난 아기의 아버지인듯 한 젊은 남성이 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을 꺼내들자 의사는 이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하면서 어디서 빨리 돈을 돌려서라도 당장 피를 사와야 하겠다는것이였다. 그 말에 가족들모두가 와뜰 놀라며 밖으로 뛰여나가는것이였다.

처음 목격하는 광경앞에서 나는 아연해지고말았다.

산파적출혈이 얼마나 분초를 다투게 위험한가 하는것을 이들이 모른단 말인가. 더우기 놀라운것은 의사들의 모습이였다.

출혈이 심한 환자를 수술대우에 남겨둔채 수술실을 나서는 그들, 가족들이 피를 사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그들의 자세는 너무도 태연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때 나의 가슴속에서는 《아, 고마운 우리 조국!》이라는 말이 저도모르게 울려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며칠후 그들을 만난 기회에 나는 평양산원에서 아기를 받아안고있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에 대하여 긍지에 넘쳐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조선에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다는것은 알고있으며 평양산원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 하지만 생명을 구원해주었으면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 모든것을 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보상해주고있는지 리해되지 않는다며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우리가 치료비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듯이 인간생명우에 돈을 먼저 놓는 그런 사회에서 나서 사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고마운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다 알수 있으랴.

더우기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30년동안 백수십차에 걸쳐 많은 산꼴과 보약재들, 최신의료설비들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평범한 녀성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달리는 소생실》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누비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례사롭게 전해지는 내 조국의 아름다운 현실에 대하여 어찌 꿈에서조차 그려볼수 있으랴.

체험을 통하여 절감한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고마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귀중함이 사무쳐올수록 복받은 우리 녀성들의 건강을 담당한 의료일군으로서의 긍지와 자각이 가슴을 두드리군 한다.

몇밤을 지새워도 다 전하지 못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평양산원을 돌아보고 남긴 외국인들의 반향 몇가지로 마치려고 한다.

《평양산원은 조선녀성들의 자랑이며 전세계 녀성들의 자랑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병원을 난생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이처럼 현대적이고 훌륭한 병원에서 모든 녀성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 좋은 정치체제를 피와 살을 다 바쳐서라도 끝까지 고수하여야 합니다.》

평양산원 과장 표 혜 숙

미제침략자들의 학살만행에 격분을 금치 못하며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요덕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놈들에게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미제살인귀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군과 강서군 수산리를 비롯하여 공화국북반부의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사람의 머리에 테루못을 박아 죽이고 달구지에 묶어 사지를 찢어 학살한 살인마들, 인민군후방가족이라고 하여 죽이고 로동당원의 가족이라고 죽이였으며 열성농민의 안해라고 하여 죽인 피에 주린 야수들, 지어 놈들은 어머니의 모습만을 겨우 가려보는 갓난애들까지 《빨갱이》의 씨종자를 말린다고 불태워죽였으며 총으로 쏴죽이고 찔러죽이고 때려죽이고 팔다리를 잘라 불구로 만들었다.

미제의 살인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군사시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주민지대에 무차별폭격과 기총사격을 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평양시에서만도 1952년 7월 11일 낮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00여대의 미제공중비적들이 6 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약 8 000여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미군의 만행을 직접 조사한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은 조사보고에서 이렇게 폭로하였다.

《미국군대가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는 수십만의 평화적주민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늙은이나 젊은이나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타죽고 매맞아죽고 생매장을 당하였다. …

이러한 대중적학살과 대중적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유럽나라들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혹심한것이다.》

미제는 평양시에만도 42만여개의 폭탄을 떨구었다. 이것은 당시 평양시인구 한사람당 한개가 넘는 폭탄을 투하한것으로 된다. 미제는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1950년 6월부터 1951년말사이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각종 교육, 문화, 보건시설들과 수백만호의 살림집, 수만정보의 농경지들을 파괴하고 페허로 만들었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1952년 8월 5일 당시의 미극동군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북조선에는 쓸어도 걸리는것이 없게》 하기 위해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였다.

지어 미제식인종들은 공인된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세균무기, 유독성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대량학살하였으며 우리측 전쟁포로들을 세균 및 화학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시험대상, 의학실험대상으로 삼아 학살하고 불구로 만드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기어이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진 욱

길주군제1인민병원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병원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군계급교양관참관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는 한편 목격자들과의 상봉모임, 복수결의모임, 영화실효모임 등을 통하여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을 깊이 깨닫도록 하고있다. 병원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자본주의보건실태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직관자료들을 만들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인민들모두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있는 우리 제도의 우월성과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도록 하고있다. 이와 같은 계급교양사업은 병원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권 기 일

통일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

오늘도 해빛같은 미소로 겨레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삼천리강산에 뜨겁게 굽이쳐흐르고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나라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자신께서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우러르면서 한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서울의 한 재야인사는 동료들에게 《조국을 해방시켜주시고 갈라진 민족의 설음을 가셔주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불면불휴의 로고로 일관된 위대한 한평생이였다. 주석님께서는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불행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을 제시해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심려하시였다. 하기에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김일성주석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경모하고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언제인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김일성주석님처럼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런 민중의 위대한 령수는 이 세상에 없으며 또 그분처럼 세인의 절대적인 칭송을 받으신 위인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장장 수십년세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정력적으로 활동해오시였다.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보아주시고 친필존함으로 비준하여주신 문건도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된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주석님의 한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 바치신 한생이였다.》

인천에 사는 한 퇴직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록화물을 보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이였다. 바로 이런 통일의지를 지니시였기에 그분께서는 해방후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이라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로고에 로고를 거듭하시였다. 그분이시야말로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이것은 그대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인중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자나깨나 절절히 그리고 끝없이 흠모하는 남녘겨레의 가슴속진정의 토로이다.

온 겨레가 높이 칭송하듯이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로 이어진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생애였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통일위업의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힌 조국통일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이 커갈수록 분렬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남녘겨레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정녕 우리 수령님은 자신의 모든것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통일성업에 바치시였으며 그 길에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못 견디게 그리는 남녘겨레들의 마음은 해와 달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고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주민은 어느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이렇게 말하였다.

《자나깨나 통일만을 생각하시며 남북민중에게 하루라도 빨리 통일의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늘 이르시던 김일성주석님을 세월이 흘렀다고 어찌 잊을수 있겠느냐.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통일정책들에 그이의 애국애족애민의 사상과 의지가 깃들어있기에 겨레모두가 주석님을 그토록 존경하고 못 잊어하는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겨레가 자자손손 경모하며 높이 모셔야 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언제인가 동두천에 사는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이였지만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마음쓰시였다. 우리 민족사에, 아니 인류력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다가 순직한 그런 성인, 그런 위인이 또 어디에 있는가.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주석님께서 쌓으신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 남녘겨레들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꼭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일념이 굳게 자리잡고 있다.

인천에 사는 한 재야인사는 《위인의 사상과 령도업적은 위인에 의해 계승되고 빛나게 구현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령수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하시여 주석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통일정책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현실로 꽃피우실 의지를 보여주시였다.

김정일령수님의 령도따라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 관철을 위해 산악같이 일어선 북녘의 동포들과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뛰여들어 민족성원의 도리를 다하자.》고 동료들에게 호소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의 한 인사는 청년대학생들을 위한 강연회에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위업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있고 그분을 우러러따르는 겨레의 힘이 있는 한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것이 없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그분의 통일방략을 따라가는 우리 겨레의 진군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그 길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그렇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여 삼천리강토우에 통일강성대국이 솟아오를 력사의 그날은 머지않아 밝아오게 될것이다.

고 혁 철

겨레의 앞길을 밝히는 위대한 태양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현시기 조선반도에 조성된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이 자기의 진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 통일위업실현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민족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리론을 연구하는 과정에 그분께서 천명하신 통일방략들이 민족자주리념으로 일관되여있고 그분의 모든 사색과 활동도 애국, 애족, 애민의 뜻에 기초하고있음을 페부로 절감할수 있었다.

김정일장군님의 사상리론은 인간이 자기를 찾게 하고 온 겨레에게 민족의 생명선인 자주의식을 키워주는 활력소이며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대헌장이고 민족의 진로를 찬란히 밝혀주는 통일의 휘황한 홰불이다.

민족자주가 분렬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통일과 번영에로 이끌어가는 애국애족의 길임을 명확히 밝혀주신분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참으로 그분은 위대한 사상리론으로 통일의 지름길을 환히 밝히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서울대학교의 한 학생은 《민족의 령수와 조국통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를 받들어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앞당겨올 자기의 굳센 신념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통일은 확정적이다.

그분은 투철한 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 애국애족리념의 위대한 체현자이시고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공에로 이끌어가시는 통일의 구성이시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을 지니시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의 새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여기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조국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주통일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여 륭성번영하는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야 한다. 이남민중모두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힘차게 싸워나간다면 머지않아 민족자주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세계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이것이 오늘 남녘겨레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드팀없는 확신이다.

《우리 이남민중을 구원하고 조국과 7천만겨레의 운명을 맡아주실분은 오직 김정일장군님뿐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는 절세의 위인이시고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따라나아갈 때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자주통일의 길이 있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는 남녘겨레의 흠모심은 위인칭송의 메아리가 되여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비과학성을 폭로

남조선의 인터네트방송 《민중의 소리》가 6월 23일 《합동조사단이 내세운 폭발증거는 알루미니움녹일뿐》이라는 제목으로 《천안》호침몰사건 《조사결과》의 비과학성을 폭로하였다.

방송은 어뢰폭발의 《결정적증거》로 제시된 알루미니움산화물분석결과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있는 가운데 《민중의 소리》가 《합동조사단》의 문서들을 입수하여 분석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결과 《합동조사단》의 주장은 과학적사실을 거꾸로 리해한데서 나온 《착각》이라는것이 밝혀졌다고 방송은 지적하였다.

방송은 《합동조사단》이 《천안》호의 선체와 어뢰추진체에서 발견한 흡착물질인 알루미니움산화물이 비결정성으로서 어뢰폭발에 의한 침몰의 《증거》라고 하고있지만 문서들은 모두 이 주장을 반박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합동조사단》이 채취한 흰색가루가 비결정성산화알루미니움으로 판명된것은 그것이 《천안》호선체와 어뢰추진체의 부식된 부분 즉 알루미니움녹을 긁어모은것이였기때문이라고 방송은 폭로하였다.

다시말하여 《천안》호와 《1번어뢰》파편을 련결시킨 《결정적증거》라고 한 알루미니움산화물은 녹일뿐 결국 《결정적증거》는 아니라고 방송은 주장하였다.

⁂ ⁂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6월 25일 사설을 통해 괴뢰당국이 발표한 《천안》호침몰사건 《조사결과》를 철저히 검증할것을 주장하였다.

사설은 최근 《천안》호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느니 뭐니 하며 론의자체를 피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무엇보다 《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발표때 약 100m높이의 물기둥을 감시병이 목격했다고 한 대목이 조작되였다는 의심을 사고있다고 밝혔다. 물기둥의 존재는 《북어뢰공격설》의 중요한 근거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결국 《조사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이밖에도 알루미니움산화물문제, 미국무장관이 언급한 400페지짜리 보고서, 《국방부》가 미국대사관과 《유엔군사령부》에 넘겨주었다는 250여페지에 달하는 보고서 등 의문점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함선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탄압소동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무슨 《종북세력》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참여련대에 대한 살벌한 폭압소동을 벌려놓고있다. 이 단체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흑막속에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의 면전에서 낱낱이 까밝힌데 대한 비렬한 앙갚음이라고 볼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괴뢰당국은 유엔에 함선침몰사건의 그 무슨 《조사결과》와 《증거자료》라는것들을 들고가 《설명회》놀음을 벌리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꾀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적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대북제재》소동을 일으키는것이 그 목적이였다. 하지만 참여련대는 보수당국이 함선침몰사건을 억지로 북과 련결시키며 유엔무대에까지 끌고가는데 대해 반대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에 서한을 보내였다. 단체는 서한에서 남조선당국의 이른바 《조사결과》에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때문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남조선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것을 유엔에 들고가 인정받으려 한것으로 하여 망신을 톡톡히 당한 보수패당은 악에 받친 나머지 피비린이발을 드러냈다. 이미전에 함선침몰사건의 해명되지 않은 8가지 의문점과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사건조작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더욱 고조시킨 참여련대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괴뢰들이 이번 서한발송문제를 구실로 드디여 이 단체에 대한 더러운 복수극을 펼친것이다. 보수패거리들은 《로골적인 리적행위》라고 이 단체를 악랄하게 헐뜯는 한편 검찰당국을 내몰아 서한작성에 참가한 이 단체성원들을 《북에 대한 동조협의》니 뭐니 하면서 《보안법》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이러한 속에 지난 6월 16일과 17일 백주에 참여련대에 대한 보수깡패들의 날강도적인 폭력행위가 벌어졌다. 이날 군복형식의 제복까지 차려입은 한 극우보수단체의 불망종들은 자동차에 가스통과 신나병들을 매달고 이 단체 사무실로 돌진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일부 보수분자들은 참여련대성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다 못해 무리로 달려들어 마구 폭행을 가하는 망동을 부렸다. 한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는 참여련대의 서한발송문제를 걸고들면서 《무책임한 종북적리적행위》라느니, 《반미친북선동행위를 하는 시민단체는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느니 하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으르렁거리였다.

참여련대에 대한 괴뢰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폭압소동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의 파쑈적란동으로 일치하게 단죄규탄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참여련대가 서한을 발송한것은 유엔에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리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는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문제삼을것이 없다.

보수패당은 참여련대 서한으로 북에 제재를 가하려는 저들의 외교가 《치명적상처를 입었다.》고 고아대지만 괴뢰당국의 반민족적인 《천안》호외교가 실패하고 그에 국제사회가 랭담한 반응을 보이고있는것은 결코 참여련대의 서한때문이 아니다. 참여련대가 서한을 보내기 전부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괴뢰들의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상당한 의문과 부정적인식을 표시해왔다. 함선침몰사건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불순한 반공화국음모책동의 산물이고 유치한 날조극이라는것은 이미 보편적인 국제적여론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패당이 참여련대때문에 저들의 《천안》호외교가 실패하였다고 고아대면서 이 단체에 대한 파쑈폭압에 열을 올리는것은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성격을 폭로하는 진보세력들에게 모조리 자갈을 물리고 사건을 영원히 흑막속에 묻어버림으로써 반공화국대결전쟁소동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하기 위한 범죄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언론들도 《참여련대에 대한 공격은 〈시대착오적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면서 《참여련대에 대한 당국의 공격은 〈천안〉호파문의 진실을 덮기 위한것이다.》, 《당국이 참여련대를 외교실패의 희생물로 삼으며 마녀사냥을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참여련대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소동에는 진보세력들을 《친북좌파》로 몰아대면서 또 한차례의 광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이달에 있게 될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참패를 만회해보려는 속심도 깔려있다.

남조선괴뢰들이 참여련대를 우리와 결부시키면서 파쑈적인 《보안법》까지 발동하여 탄압소동을 강화하는것은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다. 지금 보수패당이 참여련대에 《스스로 해체하라.》고 피대를 돋구지만 실제로 해체당해야 할 당사자는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반공화국대결에 악용하는 리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다.

참여련대에 대한 보수패당의 탄압소동을 통해 우리 겨레는 동족대결과 파쑈폭압에 환장한 리명박패당의 반역적정체를 다시한번 똑똑히 깨달았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 진행

알바성원국 수뇌자회의가 6월 24일과 25일 에꽈도르의 오따발로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성원국 국가수반들과 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끝에 채택된 《오따발로선언》은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며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토착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더욱 미국의 로골화되는 인종차별책동

최근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 인종주의적인 새 법이 공포되였다.

이 법에 따라 주의 모든 학교들에서 민족간 문제와 관련한 수업 다시말하여 서로 다른 민족성원들간의 친선과 련대성을 도모할데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것이 금지되게 되였다 한다.

교육부문을 말아보는 한 관리는 민족간 문제와 관련한 과정안이 민족배타주의를 조장시키고 백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산생시킨다고 하면서 새 법의 그 무슨 《정당성》을 력설해나섰다.

주당국의 조치는 미국인종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의 력사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종의 증오와 멸시를 정당화하려는 발악적인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월 바로 이 주의회에서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법이 채택되였고 주경찰당국은 피부색과 민족출신이 다르다는 리유 하나만으로도 이주민들을 제멋대로 구속하고 범죄자로 조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것은 미국에서 살고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조장시키는 위험한것으로서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아리조나주당국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 인종주의적본성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새 세대들에게까지 배타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법아닌 《법》을 또다시 조작하였던것이다.

외신들은 현 미행정부가 외관상으로는 아리조나주당국의 인종주의법들이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아무런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본래 인디안들의 해골더미우에서 아프리카흑인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독버섯처럼 솟아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다른 민족들에 대한 야수적인 침략과 략탈로 살쪄온 인종주의국가, 인종주의의 아성이라는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미국에서 현시기 련이어 조작되는 인종주의적법들은 유색인종에 대한 극단한 사회적차별분위기를 보다 우심하게 만들고있으며 그 기운은 그대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를 초래하고있다.

대표적실례로 《불법이주》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메히꼬와의 국경지역에서 미국국경경비성원들이 끔찍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는것을 들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이주민 혹은 유색인종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17명의 메히꼬주민이 미국의 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6월 7일 미국측 경비성원들은 메히꼬경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조차 마구 사격을 가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현지주민들은 사격을 피해 숨어있는 아이들에게 미군병사들이 계속 총질을 하여 끝내 14살 난 소년을 살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메히꼬대통령 펠리뻬 깔데론이노호싸는 미국의 만행에 격분을 표시하면서 날로 악랄해지는 메히꼬인들에 대한 폭행이 바로 인종차별의 합법화를 떠드는 미국인종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이 나라 외무성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죄자들을 무조건 엄벌에 처할것을 미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제사회는 로골화되는 미국의 살인적인 인종주의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으며 세계최대의 인종주의범죄국가에 끝없는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다.

본사기자

단 평 낯내기식말치장

최근 미국회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씨가 세계피난민의 날을 맞으며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전세계피난민들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촉구하였다. 이야말로 안팎이 다른 미국의 정객다운 낯내기식말치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피난민문제로 말하면 침략과 략탈로 살쪄온 제국주의자들의 피묻은 행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국제적인 큰 우려거리로 되고있는 피난민사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정책의 강행으로 보다 악화되였다. 펠로씨가 《성명》에서 거론한 수단의 숱한 피난민과 이라크의 엄청난 피난민행렬이 과연 누구때문에 산생되였는가. 그는 이에 대해서부터 대답을 명백히 해야 할것이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 피난민들에 대한 《안전》이요, 《평화로운 미래》요 뭐요 하고 말장난을 한것은 낯간지러운 처세술이며 미국식서푼짜리위선이다.

펠로씨가 이런 미사려구로 피난민사태를 몰아온 미국의 범행을 감싸려 한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아마 그의 서툰 언어유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을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피난민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저들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고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할것이다.

배 금 희

경상수지, 무역적자 증대, 수출 감소

—미국에서 올해 1.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090억 1 000만US$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8% 증대된것이라 한다. 6월 17일 미상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올해 4월에 무역적자가 그 전달보다 0.6% 늘어나 402억 9 000만US$에 달하였다.

6월 10일 미상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1.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96억€에 달하였다.

최근 유럽동맹 통계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4월에 수출액이 그 전달에 비해 2.4% 감소되였다.

6월 15일 유럽동맹 통계국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을 위한 움직임

세계적으로 경제가 장성하는것과 관련하여 에네르기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구온난화의 후과로 강과 호수의 물이 대폭 줄어들고 석탄자원이 고갈되여 수력 및 화력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있다. 실례로 우간다에서는 빅토리아호를 비롯한 여러 호수와 강들의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량이 발전능력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지금처럼 천연에네르기자원을 계속 소비만 하면 지구상에 있는 원유는 44년, 천연가스는 56년, 석탄은 200년이면 바닥이 날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핵에네르기개발에 주목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핵에네르기는 날로 높아가는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 기후변화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지난 시기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우점을 중시하고 핵에네르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세계적으로 볼 때 197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에 핵발전소들의 총발전능력은 해마다 평균 17% 증대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핵에네르기확보도 최근년간 급속한 경제장성과 발전에 따르는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우 더 많은 에네르기수요를 느끼고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은 평화적핵개발을 사회경제적진보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5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연설한 유엔주재 남아프리카상임대표는 평화적핵에네르기리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는것은 지속적인 경제장성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특별히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여 부족되는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우간다, 케니아, 짐바브웨 등 다른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도 울려나왔다. 그들은 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 리용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빼앗길수 없는 권리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적협조를 발전시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최근 브라질대통령은 라지오방송과의 회견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전력수요를 보장하는 등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리용은 합법적인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동북부지역에서의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 적극 추진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수리아외무성 부상은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체로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 권리는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될수 없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발전도상나라들은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인디아에서는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발전능력이 총 70만kW에 달하는 4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일떠세우고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2025년까지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메히꼬에서는 현재 나라의 동남부지역에 첫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져 운영되고있는데 발전소의 년간 발전능력은 68만 3 000kW에 달한다. 메히꼬정부는 2024년까지 나라의 총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35% 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건설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가나정부도 2018년까지 발전능력이 40만kW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공사를 추진시키고있다.

에짚트정부는 핵에네르기를 평화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2019년에 첫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완공하기로 하였다. 마로끄에서는 2020년부터 10년안으로 나라의 남부지역에 10만kW능력의 원자력시험발전소를 일떠세우게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자체로 핵에네르기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의 협조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여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은 날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신 경 섭

ㄱ-0111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